

대인예술시장

대인시장은 몇년전부터 대안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작가들이 빈 점포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시장 상인들과 어울리면서 시장에서는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공연에서 전시까지 구석구석 문화시장

‘네티나무숲’ 19일까지 ‘하루씩’ 전

요리경연·노래기타교실·영화 CF 촬영

‘찾아가는 스튜디오’ 상인들 가장 선호

물건의 재해석 ‘리폼 공작소’ 전시회도



‘Zoo Factory-리폼공작소’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된 2011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네티나무숲’은 미술인들 위주로 진행됐던 데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특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팀이 그간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하루씩’전이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매일 한 팀씩 5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작업실에서 진행하는 행사다.

▲요리하는 여고생, 노래하는 남자
전남여고 2학년인 이가연양 등 4명의 반친구들은 ‘솔통걸스 피자푸드하우스’를 결성, 음식 만들기에 나섰다. 이양들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한번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상인·작가들과 함께 나눠 먹는 행사

를 진행했다. 발표일인 9일(오후 3시~5시)에는 그동안 만들었던 요리 레시피를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연다. 시장속 음악사랑방 다락(多樂)을 운영중인 인우씨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과 기타교실을 진행했으며 매일 한차례 ‘다락의 골방 음악회’도 열고 있다. 발표날인 14일(오후 7~9시)에는 멋진 공연이 어우러진 즐거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 영상창작촌을 운영했던 윤수 안씨는 18일(오후 3시~5시) 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한 영화와 CF를 상영한다. ▲전시·음악회·영화상영 등 다채
사진가 이세현(10일)의 작업실 ‘사진공작소’는 가게를 지켜야 하

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감안, 상인들을 직접 방문에 사진을 찍어주는 ‘찾아가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상인들이 가장 선호한 증명사진과 영정사진을 촬영, 큰 호응을 받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한다. 고재근씨가 운영하는 ART 점방 ‘통통’은 대인시장에서 전시공간, 아트숍, 미니공연장 등으로 활용 중인 복합문화공간이자 사랑방이다. 지난해 25명의 작가가 참여한 ‘로그인 장/Login 場’전을 진행했고 오는 28일까지는 1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토끼장/Tokki場’전을 연다. 또 시장 속 구석구석을 함께 둘러보는 ‘딩동댕-시장 여행사’를 진행한 양지애(15일), 상인들이 사용하는 물건 리폼을 통해 재해석한 전시를 구상한 ‘달팽이 리폼 공작소’의 박인선(16일), ‘대인시장 이가 그릇’ 프로그램을 진행한 선예원(12일), ‘Zoo Factory-리폼공작소’(19일)를 운영한 김윤주씨 등도 전시회에 참여한다. 문의 062-230-1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인 35% 일년 동안 책 한권도 안본다

책 읽는 성인 독서량은 늘어... 학생 참고서 구입비 일반도서 2배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35%가 일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등 독서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들의 독서량은 더 늘어나 독서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12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과 초·중·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2009년보다 6.3%

감소한 6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만화, 잡지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은 비율이 성인 10명 중 6.5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성인의 독서율 추이를 보면 94년 8.8%에서 95년 7.9%로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이어 99년 7.8%, 2004년 7.3%, 2008년 7.2%, 2009년 7.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책을 읽는 성인들의 독서량은 15.3권에서 16.6권으로 늘어나고 독서 시간이 10분(평일 기준) 증가했다. 2009년보다 1400원

서 성인 전체 연평균 독서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10.8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학생들의 독서율도 93.7%에서 92.3%로 소폭 감소했으나 학기당 독서량은 16.0권에서 16.5권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권의 책이라도 읽은 성인의 월평균 도서 구입비는 9800원, 학생들의 한 학기 도서 구입비는 일반도서 3만원, 참고서 6만8000원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성인 ±3.1%, 학생 ±1.8%였다. /연합뉴스

화폭 한가득 꽃이 피었습니다

서울·광주서 서양화가 장금만 개인전

서양화가 장금만씨가 서울(인사동 갤러리 라이트·9~15일)과 광주(광주롯데갤러리·17~23일)를 오가며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장씨는 화사한 꽃과 사물 놀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신작을 발표한다. 화면 가득 차지 하고 있는 꽃은 색의 자연스러운 변질을 통해 꽃잎의 아름다

움을 형상화했고, 꽃송의 사실적인 묘사도 돋보인다. 또 북과 장구를 치는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이 역동적이며, 황토색 등 남도의 색깔을 담았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나온 뒤 3차례 개인전을 열고, 미술인의 만남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 서석중 교사, 무동회, 평면연구회



‘10生-II-春+音+動’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병자의 날 기념 ‘작은 음악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조선대학교병원 등서 10·11일

교황청이 정한 세계 병자의 날(2월 11일)을 맞아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태 대주교)는 10·11일 양일간 조선대학교병원 등에서 작은음악회를 연다. 세계 병자의 날은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병자들에게 대한 봉사정신을 확산시키고,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태해 제정했다. 세계 병자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환우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



회’에서는 가톨릭 생활사가 가수 김정식(사진)씨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안의 노래를 선사한다. 공연은 10일 낮 12시 30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열리며 오후 4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다. 이어 11일 오후 4시에는 광주 보훈병원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510-281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노인지도자대학

신입생 모집 28일까지

(사)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회장 송영복)는 광주노인지도자대학 제25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학할 원하는 어르신(65세 이상 남녀)은 입학원서, 가족관계부 등 서류를 준비해 연합회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 3월부터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노인지도자 자질과 교양, 노년의학, 경영 등의 수업을 받게 된다. 수업료·교재비는 무료이다. 문의 062-652-737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철수씨 창작동화집 ‘꽃제비 사랑’ 출간

13일 옛 5·18묘역서 김남주 시인 추모식

아동문학가 김철수(62·사진)씨가 창작동화집 ‘꽃제비 사랑’(세계도서치료학회 펴냄)을 출간했다. ‘꽃제비’는 북한 두만강과 중국 접경 등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어린 아이, 유랑민 등을 뜻하는 속어다. 책은 주로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 후대들이 부모와 생이별하며 겪는 삶의 애환과 국경도시인 도문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고단한 삶의 실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실감나게 그렸다. 김씨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



라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 래도 이들에게 한 가닥 꿈과 희망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작품을 썼다”고 말했다. 김씨는 함평출신으로 지난 1981년 기독교아동문학상과 1984년 월간문학에 동화가 당선돼 등단, 동화집 ‘꾸러기 장군’ ‘두발자전거’ ‘우산장수 할아버지’ 등을 출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강철처럼 강하고, 풀꽃처럼 부드럽게 민주와 통일을 노래했던 해남 출신 김남주(1947~1994년·사진) 시인의 추모식이 열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경운)와 김남주기념사업회는 13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망월동 옛 5·18묘역 김남주 시인의 묘지에서 17주기 추모식을 마련했다. 이날 추모식은 추모사, 추모시 낭송, 내뽕소리민족예술단 공연, 고인의 육성 낭독 시 ‘마지막 인사’ 듣기, 기념사업 경과 보고, 부인 박광숙씨



등 유가족 인사순으로 진행된다. 김남주 시인은 지난 1979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 동안 복역한 뒤 1988년 가석방됐다. 대표 시집으로 ‘진혼가’ ‘나의 갈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이 있다. 문의 062-523-783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展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27까지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이음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건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com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추운 겨울! 따뜻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하남점, MEGABOX, CINUS. 2011년 첫 판타지액션대작 시즌연대워치. 1관 험로우 고스트(12세)/상하이(15세). 2관 리스토킳퍼(12세)/시즌오브더워치(12세). 3관 클러브(12세)/조선명탐정(12세). 4관 조선명탐정(12세). 5관 걸리버여행기(12세). 6관 그린호넷(15세). 7관 메가마인드(12세)/평양성(12세). 8관 타운(18세). 9관 클러브(12세). 10관 평양성(12세). 1관 걸리버여행기(12세)/클러브(12세). 2관 조선명탐정(12세). 3관 평양성(12세). 4관 메가마인드(12세)/그린호넷(15세). 5관 클러브(12세)/클러브(12세). 6관 리스토킳퍼(12세)/타운(18세). 7관 시즌오브더워치(15세)/험로우고스트(12세). 8관 그린호넷(15세)/상하이(15세). 9관 걸리버여행기(12세)/평양성(12세). 10관 조선명탐정(12세). 1관 클러브(12세). 2관 험로우고스트(12세)/상하이(15세). 3관 조선명탐정(12세). 4관 걸리버여행기(12세). 5관 타운(18세). 6관 걸리버여행기(12세)/그린호넷(15세). 7관 평양성(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